

春洲 金道洙의 春川 幽居와 시세계

김 근 태 *

<目次>

- | | |
|----------------------|----------------------|
| I. 서론 | 2. 벗에 대한 그리움과 과거의 향수 |
| II. 청풍김씨 가문과 춘천 | 3. 孤高함의 표출과 위정자에 |
| III. 春川 幽居 시기의 시세계 | 대한 비판 |
| 1. 幽居의 한가로움과 관직에의 열망 | IV. 결론 |

<국문 초록>

조선 중기 명문 가문에서 서자의 자손으로 태어난 김도수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여 문학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러나 당시 유명한 사대부 문인 및 중인 계층, 같은 서얼 계층의 문인들과 교유하면서 시적 능력을 인정받았고, 말단이지만 관직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당시 사회제도에서 서얼이라는 신분상의 제약으로 관직생활은 짧을 수밖에 없었고, 그는 춘천으로의 유거를 선택하였다. 春洲라는 호를 사용할 정도로 그의 길지 않은 생애에서 춘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그가 춘천에 유거하게 된 배경과 그 속에서 지은 한시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춘천은 청평산을 끼고 있어 예로부터 은일의 고장으로 명성이 났으며, 실제로 이자현, 김수증을 비롯하여 여러 인물들이 은거생활을 하였다. 또한 퇴계와 다산 등 조선시대 수많은 시인들이 이곳에 들러 그들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맥을 같이 하는 시를 짓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도수의 춘천 유

* 강원대학교 강사 / neoktkim@paran.com

거는 일반적인 은거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는 자신이 원하여 은거한 것이 아니라 서얼 출신이라는 신분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거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춘천에서 지은 시문에는 현실지향적인 의식이 매우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춘천에 유거하면서 느끼는 한가로움을 읊기도 한 반면에 관직에 진출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표출하였다. 또한 홀로 외로이 지내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벗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 형상화 하였으며, 옛날 서울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며 향수에 젖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희망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는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고고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고,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위정자들의 무능력과 안일함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주제어】 김도수, 서얼, 춘천, 현실지향

I. 서론

春洲 金道洙(1699-1733, 字는 士源)는 문학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¹⁾ 그는 조선 중기 명문 가문이자 외척으로 권세를 누렸던 청풍김씨 가문에 태어났지만 부친이 서얼인 관계로 끝내 현달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다. 생몰연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만큼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려서부터 시문에 재능을 보여²⁾ 金昌翁, 李夏

1) 『司馬榜目』에는 김도수의 출생연도가 1701년생으로 기록되어 있고, 『古鮮冊譜』에는 「通川邑先生案」을 근거로 1741년에 공조 정랑으로서 通川郡守가 되었다가 1742년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출생연도는 미상이고 사망연대가 174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모두 잘못된 기록이다. 김도수의 한시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김경숙은 김도수의 생몰연대를 1701-1733이라 하였다. 그러나 문집총간 해제에서 밝혔듯이 「東嶺寺與元菩薩詩」의 序를 보면, “余年二十二庚子夏棲三角山東嶺寺…”라고 하여, 경자년에 22세(1699년생)임을 밝히고 있고, 族譜에도 1699년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어 출생연도는 1699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보인다.

2) 『春洲遺稿』 1권, 「淸平山述懷 與尅念上人」의 1구와 2구, “少年喜文章, 浩蕩

坤 등 당시 문단을 주도하던 노론계 인사들과 교유하였고, 특히 같은 서얼 신분의 李鳳煥은 선배 서얼들 가운데 申維翰과 더불어 김도수의 시적 재능을 최고로 추허하기도 하였다.³⁾

지금까지 김도수의 삶과 문학세계에 대한 연구물은 조선 중후기 서얼들의 문학을 연구하면서 함께 다룬 김경숙의 논문⁴⁾과 김부열의 논문이 있다.⁵⁾ 선행연구에서 그가 김창흡을 스승으로 모셨고, 이하곤, 송상기 등 노론 명문가의 문사들 및 洪世泰, 鄭來僑, 鄭敏僑 등 중인층, 李梅, 洪敘箕 등 서얼들과 교유하였다는 점과 현실생활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산수 유람을 즐겨 전국 유명산을 대부분 유람하였고, 서얼과 외척이라는 독특한 신분에서 오는 갈등을 시문으로 표출했음을 밝혔다.

본고에서는 春洲라는 호를 사용할 정도로 그의 길지 않은 생애에서 춘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하여, 춘천에 幽居한 상황과 그 속에서 지은 한시를 살펴보고자 한다.⁶⁾ 김부열의 논문에서 “春川幽居에서의 시세계”란 하나의 장을 설정하여 이것을 다루었지만 잘못 파악하여

無所如(꺾어서 문장을 좋아하여, 호탕함은 비길 바가 없었다네.” 『春洲遺稿』는 1권 한시, 2권 산문 등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집총간』 219권에 영인 수록되어 있다. 이하 인용문과 주석에서는 별도로 권수를 밝히지 않는다.

- 3) 李鳳煥, 『雨念齋詩文鈔』 8권, 「與子文」, “我愛足下者也 又嘗勉之以學古文者也 安得不仰喜必須明着眼力 以足下才能將來成就 豈在申周伯金士源下也” (김경숙, 「18세기 전반 서얼문학 연구 : 이세원, 신유한, 강백, 김도수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9. 재인용.)
- 4) 김경숙, 「18세기 전반 서얼문학 연구 : 이세원, 신유한, 강백, 김도수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9.; 김경숙, 「金道洙 漢詩 研究 : 外戚과 庶孽의 二重的 自我」, 『한국한문학연구』 28집, 한국한문학회, 2001. 김경숙의 학위논문은 『조선 후기 서얼문학 연구』, 소명출판, 2005.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 5) 김부열, 「春洲 金道洙의 漢詩 研究」,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6) 본고에서 ‘隱居’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굳이 ‘幽居’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隱居’라는 단어에는 속세와의 단절이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도수의 경우는 이와 약간 다른 성격을 지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다룬다.

거론한 점 등이 보이기에 본고에서 새롭게 다루어보고자 한다.

II. 청풍김씨 가문과 춘천

청풍김씨 가운데 조선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행적을 보인 인물은 김도수의 조부인 金堉과 그의 두 아들인 金佑明·佐明 및 김좌명의 아들 金錫甝를 들 수 있다. 김도수는 김우명의 손자이다. 본 장에서는 김도수가 춘천에 유거하게 된 배경을 그의 가문과 연결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충청도 충주에 세거하던 청풍김씨는 金敬文이 해주오씨 吳晉卿의 사위가 되는 것을 계기로 황해도 해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 이후 해주가 청풍김씨의 주요한 거점이 되었다.⁷⁾ 조선조에 들어 金薰(1433-1493)이 1459년 김종직과 함께 문과에 급제하여 교유하였고, 양녕대군의 아들인 順城君의 사위가 됨으로써 중앙정계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질(1435-1488)의 아들 金叔彌은 요절하였으나 경기도 남양주에 기반을 가졌던 장인 泗川陸氏 陸哲成이 과부가 된 딸에게도 재산을 분급하여 이후 경기도 양주 金村里는 청풍김씨 가문의 墓山이 되었다. 김숙필(1482-1520)의 아들 金湜(1482-1520)은 조광조와 더불어 중종대 己卯名賢의 일원으로 사림에게 추송을 받아 명망이 높았다. 이렇듯 유력한 집안과의 혼인과 개인의 자질로 점차 서울생활의 기반을 잡아가던 청풍김씨 가문은 1519년 기묘사화에 김식이 연루되어 유배지에서 자결함으로써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후 관직 진출이 막혀 후진 양성에 매진하며 기회를 엿보던 이 가문은 김식의 증손자인 金堉(1580-1660)에 이르러 다시 현달하기 시작하였다. 김육은 고모부 임경홍의 소개로 경기도 加平에 세거의 터를 잡게 되기까지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으며, 선조 재위시절에 이미

7) 金佐明, 『歸溪遺稿』 하권. 「書宗會題名錄後」, “吾金籍淸風 鼻祖侍中府君卒 葬府地白峙 其後世移居忠州 至我八世祖校尉公 聘于海州吳氏之門 遂宅於首陽之陰藥鹿村.”

司馬와 別試에 합격하여 文名이 높았지만 관직생활은 순탄하지 못하였다. 그는 10여 년 동안 서울을 떠나 가평 潛谷 淸德洞에 晦靜堂을 짓고 손수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인조반정 후 본격적으로 관직에 진출하여 영의정을 역임하였고, 그의 아들인 金佑明·佐明 형제와 손자인 金錫靑 3대에 이르러 드디어 西人系 名家로 부상하였다. 특히 金佑明(1619-1675)의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훗날 顯宗의 왕비가 된 明聖王后이니 肅宗은 그에게 외손자가 된다. 또한 김좌명은 선조의 부마인 신익성의 사위가 되었으며, 김육의 외손녀가 福昌君 楨의 부인이 되는 등 종친과의 혼인으로 현종에서 숙종 연간에 걸쳐 外戚으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와 같이 중앙의 門閥로 성장한 김육 및 김좌명·우명의 가계가 각지의 동족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청풍김씨의 중심세력으로 인식되었다. 김육에 의해 청풍김씨 족보가 편찬되었고 중앙정계로 진출하기 전 선대의 기반이 되었던 해주지역에 있던 宗中이 종회의 일을 김좌명에게 문의하였고 「宗會題名錄」을 보내기도 하였다.⁸⁾ 김육은 부친의 묘소를 해주에 두었다가 楊州 金村으로 이장하였는데, 이로써 양주가 청풍김씨 가문의 주요한 거점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⁹⁾

그런데 김육을 비롯하여 청풍김씨 가문 대부분의 인물들의 무덤이 양주에 집중되어 있는데 김우명만은 춘천에 장지를 정하였다. 춘천에 장지를 정한 연유는 조카인 김석주가 쓴 그의 謚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김우명)의 부인은 덕은부부인 송씨로 전주부운 국택의 따님이다. 부인으로서의 정숙하고 아름다운 법도를 지녔는데 공보다 17년 앞서 세상을 떠났다. 처음엔 양주 문곡리에 장사지냈는데 무덤이 얕고 드러난다고 하여 새로이 묘소를 구해 강원도 춘천부 서쪽 보안역 亥向의 언덕으로 옮겼다. 처음에 공이 무덤의 오른쪽을 비워두라고 명하였는데 공이 세상을 떠남에 그 해 10월에 거기에 장

8) 金佐明, 『歸溪遺稿』 하권, 「書宗會題名錄後」.

9) 이상은 鄭萬祚, 「朝鮮中後期 京畿北部地域의 士族變遷과 集性村의 發達」, 『北岳史論』 8집, 북악사학회, 2001. 및 조준호, 「朝鮮 肅宗~英祖代 近畿地域 老論學脈 研究」,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4.를 참조하여 구성한 것임.

사지냈다.¹⁰⁾

김우명의 부인인 은진송씨의 무덤을 집안의 관례대로 양주 묘산에 마련했는데 문제가 생겨 새로이 무덤 자리를 구하다가 춘천으로 장지를 정했다는 내용이다. 전통사회에서 장지를 정할 때 풍수설과 함께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점이 교통의 편의성임을 감안할 때¹¹⁾ 춘천에 장지를 정한 것은 춘천이 청풍김씨의 주된 거점이었던 양주, 가평 등과 왕래가 비교적 편리하였다는 점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우명이 춘천에 묻힌 이후 그의 셋째 아들인 錫衍과 그의 후손들이 춘천에 묘소를 두어 춘천에 집성촌을 이루었으며, 춘천이 낳은 우리나라 근대소설의 대표적인 작가인 김유정도 청풍김씨 출신이다.¹²⁾

「安保驛村」

水驛煙初起	물가 역마을에 연기 처음 피어오르고
東風吹雨斜	봄바람 불어 비도 비껴 내린다.
江山太古意	강산은 태고의 모습 떠났고
林木一春花	숲속 나무는 한결같은 봄 꽃일세.
斷岸嘶歸馬	끊어진 강가에서 말은 울어대고
平沙落暮鴉	넓은 모래사장엔 저녁 까마귀 내려앉네.
我行三到此	세 번에 걸쳐 이곳에 이르니

10) 金錫胄, 『息庵先生遺稿』 22卷, 「叔父清風府院君諡狀」, “公配曰德恩府夫人宋氏 全州府尹國澤之女 有淑貞懿範 先公十七年下世 初窆于楊州文谷里 後以宅兆淺露 卜遷于江原道春川府治西保安驛村坐亥之原 始公命虛其右 及公歿 以其年十月葬焉”

김좌명이 쓴 「德恩府夫人宋氏墓誌銘」(『歸溪遺稿』 下卷)에도 “粵在庚子歲 德恩府夫人卒 葬于楊州之文谷里 余曾撰幽宮之銘 越七年丁未 以宅兆淺露 卜遷于江原道春川府治西保安驛村一里許坐亥之原 用二月丙寅安葬焉”라고 되어 있다.

11) 李根浩·趙峻皓·李桂炯, 「京畿北部地域의 集姓村의 分布와 立地條件」, 『北岳史論』 8집, 북악사학회, 2001.

12) 김유정과 청풍김씨 관계는 김영기, 『김유정-그 문학과 생애』, 지문사, 1992. 에 자세하다.

遙認老奴家 저 멀리 늙은 노비의 집 알아보겠네.

위 시의 尾聯에서 老奴家는 김우명의 무덤을 관리하면서 청풍김씨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소작농이라 할 수 있으니, 춘천에 청풍김씨의 田莊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³⁾ 따라서 김도수가 춘천에 유거한 것은 춘천에 청풍김씨 가문의 연고가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김도수의 무덤도 춘천 근처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다.

Ⅲ. 春川 幽居 시기의 시세계

김도수의 일생을 알 수 있는 기록은 매우 소략하다. 묘지명이나 행장도 현재 전해지지 않으며 문집의 서문과 발문도 없는 상태라 그가 춘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머물렀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다만 그가 남긴 문집의 관련 시문을 토대로 볼 때 음직으로 짧은 관직생활을 마치고 춘천에 유거한 것으로 파악될 뿐이다. 그러나 3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기에 그의 일생에서 춘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청·장년기 시절 출신 성분 때문에 관직생활이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느낀 방황과 울분, 기대감 등을 표출한 시문이 춘천에 유거할 때 주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 幽居의 한가로움과 관직에의 열망

『春洲遺稿』에는 「幽居」라는 제목의 시가 모두 두 편 수록되어 있다. 이 두 편의 시와 또 다른 시를 통하여 유거생활의 단면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3) 「卜居用杜詩韻」라는 시의 경련에서 “藥圃傍添竹 茶畦半種瓜(약초밭 곁에 대나무 심었고, 차밭 반은 오이씨 뿌렸네.)”라고 하여 먹고 사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식물을 심고 완상하려는 의도가 보이기도 한다.

「幽居」

最愛清溪洞	최고로 사랑스런 청계동
冷然洗垢氛	찌든 때 시원하게 씻어준다.
一來巖穴臥	산속 움막으로 오고 나서는
不與世間聞	세상사 돌아가는 일 듣지 않는다.
終日山中雨	종일토록 산속엔 비가 내리고
無時枕上雲	때도 없이 침상위로 구름 솟는다.
微吟俯仰處	굽어보고 우리러보며 나지막히 읊조리는 곳
獨有古人文	오직 고인의 글만 있다.

「幽居」

寂寂門常掩	조용하게 문은 항상 닫아두고
幽居夢亦閒	깊숙이 은거하니 꿈도 또한 한가롭네.
有時風拂柳	때때로 바람이 버드나무에 스치우고
長日鳥鳴山	긴 하루 새는 산에서 울어대네.

「卜居用杜詩韻」

新得地藏洞	새로이 지장동을 찾았는데
幽深可結家	그윽하고 깊숙하여 집 지을만하네.
芟蘿嫌近瓦	덩쿨을 잘라 이은 것은 기와를 꺼린 것이고
築石護崩沙	돌을 쌓아 모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네.
藥圃傍添竹	약초밭 곁에 대나무 심었고
茶畦半種瓜	차 밭 반은 오이씨 뿌렸네.
卽今楓未老	지금 단풍 아직 시들지 않아
春月正迷花	마치 봄날 달밤 꽃에 취한 듯 하다네.

위에서 인용한 세 편의 시를 통해 김도수가 춘천에 유거하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여유로움과 한가로움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당시 사회에서

재능을 지닌 서얼이 받아야 하는 질시어린 눈총과 비방에 괴로워하였고¹⁴⁾ 결국은 관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속세와 단절하고 자연과 동화되어 고인의 책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지만 이러한 경향의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¹⁵⁾ 속세와의 미련을 끊기에 그는 너무나 젊었고 현실지향 의식은 너무나 강하였다. 그가 속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위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서얼에 대한 차별이었다.

고려시대와는 다르게 조선왕조는 초기부터 庶孽禁錮法의 시행으로 서얼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의 관직 진출도 사실상 막았다. 宣祖대에 이르러 李珣의 건의에 따라 서얼에게 納粟赴舉가 허락되었고, 仁祖대에 최명길 등의 건의에 따라 서얼들의 청요직 진출도 허용되었으며, 숙종대에 이르러 1696년 최석정의 건의에 따라 서얼들의 납속부거를 없애 과거응시 자격이 일반 사대부와 같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얼의 限品敍用 규정도 점차 완화되어 1772년(영조 48) 최초로 통칭이 이루어진 이후로 정조와 순조 시대에도 통칭은 계속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14) 金道洙, 『春洲遺稿』 2권, 「答李伯春書」, “足下意欲令僕多接人酬唱 益求聲譽 此非僕之願也 僕本不能詩 猥竊虛名 雖曾無一番與世之詩人交遊談論 而側目不好視者 固已滿世矣 又況紛紜馳逐於聲譽之場 耀奇揚華 鬪巧競捷 而作色相矜 自以爲好者乎 … 僕生十三 學爲詩于今十四年矣 僕雖庸才 豈無一二篇可示於人者 然輒深藏而不出之 惟恐其有聞者 誠以名不可居 謗由是生故也”

「謾成」의 수련과 함련, “十五天中月 乍盈還自虧 吾名亦已濫 浮謗詎非宜(보름날 하늘 가운데 달은, 얼핏 찻다가 다시 절로 이지러지네. 내 명성 또한 이미 넘쳐나니, 떠도는 비방 어찌 당연하지 않겠는가?)”

「送春」의 尾聯, “自從學干祿, 萬事一蹉跎(녹을 구하는 것 배우고부터, 매사 모두 한결같이 어긋났네.)”

15) 아래의 시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萬峽」의 首聯, “役役營糊口 悠悠遂至今(먹고 사는 일에 얽매었다가, 지금에야 한가롭게 되었다.)”

「次李汝亮」의 首聯, “幽居春睡足 塵事撼人穠(깊이 은거하니 봄날 잠도 폭 자고, 사람을 흔드는 속세의 일도 드물다네.)”

「日暮」의 頸聯, “京輦無閒話 江湖得穩眠(서울에선 한가로운 대화 없더니, 강호에선 편안한 잠 얻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실일 뿐 실질적으로 적서차별은 엄연히 존재하였다. 19세기 말 갑오경장에 이르러 노비 혁파와 더불어 서얼차별이 사라지게 되기 전까지 서얼들은 현실과 관직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¹⁶⁾

굳이 『洪吉童傳』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집안 내에서도 적서차별은 엄연히 존재하였으니 아래의 기록은 적서차별의 엄연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공(김우명)은 4남2녀를 두었는데 첫째 따님이 곧 명성왕후로 우리 주상전하(숙종)를 낳으셨고 또 세 공주를 두었는데 명선공주와 명혜공주는 요절하였고 명안공주는 해창위 오탈주에게 출가하였다. 장남 만주는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둘째 석익은 좌윤, 셋째 석연은 참의, 넷째 석달은 판관을 역임하였고 따님 하나는 현감 권익홍에게 출가하였다. 만주는 자식이 없어 석연의 아들 도제를 후사로 삼아 공의 제사를 주관한다. 석익은 외동딸을 두어 사인 홍중연에게 출가하였고 첩의 자식 5인을 두었다. 석연은 장남 도제, 둘째 도함, 셋째 도영, 넷째 도협, 다섯째 도흡, 여섯째 도영 등 5남 1녀를 두었다. 도영은 출계하여 석익의 후사가 되었다. 석달도 또한 요절하여 자식이 없다. 권익홍은 2남 1녀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 공은 측실에 5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석천, 석구, 석제, 석선, 석순이며 첫째 딸은 이지완에게 출가하였고 둘째는 어리다.¹⁷⁾

김도수의 조부인 김우명의 묘지명으로 그가 정실에게 4남 2녀를 두었

- 16) 배재홍, 「조선후기의 서얼 허통과 신분지위의 변동」,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4. 참조.
- 17) 金壽恒, 『文谷集』 19卷, 「淸風府院君金公墓誌銘并序」, “公有四男二女 女長卽我明聖王后 誕我主上殿下 又有三公主 明善·明惠並天 明安下嫁海昌尉吳泰周 男長萬胄蚤沒 贈左承旨 次錫翼左尹 次錫衍參議 次錫達判官 女次適縣監權益興 萬胄無子 以錫衍子道濟爲嗣 主公祀 錫翼一女適士人洪重衍 有妻子五人 錫衍五男一女 男長道濟 次道涵·道泳·道浹·道瀟·道泳出後錫翼 錫達亦蚤沒無子 權益興二男一女 皆幼 公側室有五男二女 男錫賤·錫耆·錫悌·錫善·錫順 女適李志完 次幼.” 위의 기록은 李敏敍가 쓴 신도비(『西河先生集』 14卷, 「淸風府院君金公神道碑銘并序」)에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다.

고, 측실에 5남 2녀를 두었음을 별도로 기록한 것이다. 김우명의 측실 소생 가운데 막내인 김석순이 바로 김도수의 부친으로 부친이 서얼인 관계로 그도 역시 서얼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당시 서얼들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은 과거에 급제하고 유력자의 후원이 있어야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도수는 그나마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도수는 집이 가난하고 부모님도 연로하여 나쁜 음식도 잊지를 못하였습니다. 외척의 신분이라 삼가고 두려워하며 과거의 명성을 구하지 않았고 남들이 거들 때보지 않는 관직의 얼마 안 되는 녹봉도 남들이 버린 나머지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 것도 또한 자못 힘을 써야 하는 것이기에 일찍이 몇 달 되지도 않아 헌 신발처럼 버렸으니 남들이 보면 진실로 매우 과감한 것이라 여길 것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도수는 재주 없고 비천한 몸으로 외람되어 선대의 음직에 이름을 올려 나이 겨우 스무 살에 말단의 자리를 차지하여 녹을 먹은 것이 지금 8년이 되었습니다.¹⁸⁾

위의 인용문은 경양찰방을 끝으로 짧은 관직생활을 마친 뒤에 쓴 글이다. 그는 소과에 급제도 하기 전에 이미 蔭職으로 관직에 진출하여 봉상사에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20대 중반까지 8년간 관직생활을 하였다. 이는 그가 서얼이긴 하였지만 청풍김씨 가문으로 외척의 신분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관직생활은 지방의 察訪 정도에서 그쳤고 그나마도 꾸준하게 하지는 못하였다.

「嘉陵」

雨暗嘉陵郡 비가 내려 어둑어둑한 가평군
雲生華岳山 구름은 화악산에서 솟아난다.

18) 金道洙, 『春洲遺稿』 2卷, 「上巡察使李公瑜書」, “道洙家貧親老 菽水不繼 戚里謹畏 不求科名 殘官冷廩 取人棄餘 然其得之亦頗費力 曾未數朔 脫若弊屣 自人觀之 誠似太果 雖然 道洙以薄材賤軀 猥藉先蔭 年纔二十 備數末行 竊祿餽歡 于今八年矣”

春川當馬首 봄내가 말머리에 보이고
 峽樹認吾顏 골짜기 나무들은 내 얼굴을 알아보네.
 水國千檣集 수국이라 천 개의 돛대가 모여들고
 鄉園百鳥閑 시골 정원이라 온갖 새들 한가롭다.
 何時謝薄宦 어느 때나 말단관직 그만두고
 襜褕此中還 도롱이 입고 이곳으로 돌아올거나.

위의 시의 제목 嘉陵은 경기도 가평의 별칭이다. 증조부인 김육이 젊을 시절 가평에 터전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그가 가평에 자주 왕래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위의 시는 首聯부터 頸聯까지는 가평의 풍경을 정감어린 시선으로 묘사하였고 마지막 尾聯에서 그의 속마음을 역설적으로 표출하였다. 관직을 그만두고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薄宦’이라는 것이 그의 성에 차지 않기 때문이었다.¹⁹⁾

그가 춘천에서 살면서 지은 시들은 한양에 대한 그리움 및 자신에게 관직이 제수되지 않는다는 하는 궁금함과 희망을 표출한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清平山和浩長老」

山廳飛玉露 산속 집 창가에 하얀 이슬 나리고
 客淚照青燈 나그네 눈물 푸른 등불에 비친다.
 報國心猶切 나라에 보답할 마음은 간절한데
 匡君力未能 임금을 보필할 능력이 없구나.
 無家問閑土 집이 없어 안 쓰는 땅 물어보고

19) 김도수는 「強宦」의 수련과 경련에서 “強宦無滋味 山居有友生 樽中松月入 堂下草虫鳴(역지로 하는 벼슬살이는 맛이 없는데, 산속에 살면 벗이 생긴다네. 술잔 안으로 술바람 달이 들어오고, 마루 아래엔 벌레들 울어댄다.)”라고 읊었다. 여기서 역시 벼슬살이는 관직생활을 원하지 않는 데도 강제로 임용되었다는 것인데, 김도수의 경우는 관직생활 자체를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제수 받은 관직이 그의 성에 차지 않는 말단직이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絶粒羨高僧 곡식이 끊겨 고승을 부러워한다.
 莫道秋風路 말하지 마시게. 가을바람 부는 길에
 飄然似季鷹 훌쩍 떠난 것이 계웅과 비슷하다고.

춘천으로 거처를 옮기고 쓴 위의 시에서 김도수의 솔직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자현과 김시습이 청평사에 은둔한 이래 청평사는 은둔지의 상징처럼 후대 시인들의 시문 속에 표현되어 있다.²⁰⁾ 위의 시는 청평사를 찾아 속세를 떠나 은둔하고픈 마음을 드러낸 다른 시인들의 일반적인 시들과는 경향이 다르다. 먼저 수련에서 나그네가 흘리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다. 눈물을 흘릴 정도의 슬픈 마음이 든 이유를 頷聯에서 알 수 있다. 임금을 도와 나라를 바로잡을 능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적서차별이라는 제도적 현실에서 오는 제약이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관직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야 좋겠건만 그는 그 마음을 버릴 수 없었으며 오히려 간절하다(절실하다)고 표현하였다. 미련에 등장하는 季鷹은 쯤나라 張翰의 字로 벼슬하여 東曹掾으로 있다가,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불현듯 고향의 순채국과 농어회가 생각나 일부러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갔다는 고사가 전해지는 인물이다. 장한이 고위관직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김도수는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어찌할 수 없기에 춘천으로 온 것이니 김도수가 생각할 때 장한은 배부른이의 투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羸馬尙西首, 微臣長北心(아원 말은 서쪽 바라보고, 말단 관리는 오래도록 임금님 생각하네)”²¹⁾라고 읊은 시에서도 그의 춘천 유거가 그가 원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春洲曲 二首

楊柳依依沙岸白 버드나무 우거져 물가는 새하얗고

20) 이경수, 「은둔의 전통과 청평사 한시」, 『韓國漢詩研究』 4집, 한국한시학회, 1996.

21) 金道洙, 『春洲遺稿』 1卷, 「寓峽」의 頸聯.

清江水暖鳥飛廻 맑은 강엔 물이 따뜻하여 새들도 날아든다.
孤舟認是漢陽客 외로운 돛단배 한양 손님임을 알겠거니
應帶日邊消息來 응당 서울 소식 가지고 오겠지.

芳堤草色綠如茵 향기로운 제방에 풀은 깔개처럼 푸르게 펼쳐져 있고
西望長安但見塵 서쪽으로 서울 바라보지만 먼지만 보이네.
白鷺洲前掛明月 백로주 앞에 걸려 있는 밝은 달
昭陽江上待歸人 소양강 가엔 돌아가기 기다리는 사람.

악부 형식을 빌어 쓴 위의 시도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구성이다. 특정 지방의 풍경과 인간들의 삶을 시인이 관찰자 시점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죽지사 계열의 일반적인 경향인데 이 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각 작품의 1구와 2구는 소양강의 풍광을 묘사하였으나²²⁾ 3구와 4구에서는 시인 자신이 주인공이다. “日邊”은 임금의 측근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니 서울에서 온 소식은 임금 주변의 소식이란 의미도 있겠지만 관직을 제수한다는 내용으로도 읽힌다. 임용장을 받고 서울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심정을 읊은 것이 두 번째 작품이다.²³⁾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김도수가 춘천에 유거한 것은 은거가 목적이 아니라 세상(임금)이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고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방편이었다고 하겠다. 그의 가문과 춘천이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고고함과 은둔의 이미지를 겸함과 동시에 도성에서 불러주면 즉시 갈 수 있는 교통상의 편의성을 춘천이 함께 지니고 있기에 유거지로써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22) 두 번째 작품에서 2구의 서울이 먼지에 끼어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도 實景 이면서 간신들에 둘러싸여 있는 도성과 궁궐을 의미한다는 이중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3) 景宗의 무덤인 懿陵을 지나면서 쓴 「過懿陵」의 미련에서 “當時宣政殿 臣亦侍中班(당시 선정전에서, 이 몸도 또한 신하의 반열이었는데.)”라고 하여 옛날 관직생활에 대한 그리움과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였다.

2. 벗에 대한 그리움과 과거의 향수

윗 절에서 김도수가 춘천에 유거한 것은 그가 원한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택한 결정임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그는 춘천에 살면서 마냥 여유로움을 느낄 수 없었으니, 춘천에 살면서도 도성을 그리워하였고 벗들과 떨어져 홀로 사는 외로움을 드러냈다.

「春州雜詩」

峽裏少親舊	골짜기속이라 친구가 적어
江邊嘆索居	강가에서 홀로 살아감을 한탄한다.
登山看落日	산에 올라 석양을 바라보니
飛鳥正愁余	날아가는 새도 정말로 나를 근심 짓게 하네.
水動春狼境	물은 춘천과 낭주 경계에서 요동치고
花深獾貉墟	꽃은 예맥의 터에서 깊어간다.
良朋思不見	좋은 벗 생각해도 볼 수 없으니
清淚集雙裾	맑은 눈물 두 소매에 흠뻑인다.

수련에서 춘천 산골짜기에 살다보니 벗들이 없이 홀로 살아감을 한탄한다고 하였고 함편에서 외로움을 잊고자 산에 올라 보지만 저물녘 등지로 돌아가는 새들을 보고도 근심한다고 하였다. 짝을 지어 등지로 깃드는 새를 보고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한층 더 느낀 것이다. 경련에서는 봄날 소양강과 산속의 실경을 묘사하였는데, 강물의 역동성과 산의 정적감을 대비시켜 시인의 감정을 잘 표현했다고 여겨진다. 배만 띄우면 그대로 도성까지 데려다 줄 것 같은 강물, 속세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봄꽃이 활짝 핀 산. 이 광경을 보려고 일반사람들은 일부러 유람을 오는 데 시인은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마음상태인 것이다. 이 시는 두보가 「春望」에서 읊은 “感時花濺淚 恨別鳥驚心”을 떠올리게 하는데 아무리 좋은 경치라도 시인이 거기에 동화되지 못하면 그것은 한낱 울적한 심

사를 돋구는 기능밖에 못하는 것이다.

「與李伯春 의 1~3연

久懷春洲志	춘천으로 귀의하려는 뜻 오래 전에 품었는데
欲往還猶豫	가려고 하다가도 오히려 머뭇거리네.
看君味于學	그대를 보니 학문에 맛을 들여
漸漸達妙處	점점 오묘한 이치에 도달하는구려.
直爲情愛故	단지 그대에 대한 애정 때문에
未忍便長去	차마 쉬이 멀리 가지 못한다네.

(下略)

춘천에 유거하기 전에 쓴 것으로 보이는 위의 시에서도 김도수의 벗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伯春은 김도수와 같은 서얼 신분인 李梅의 자이다. 춘천에 유거하려는 뜻을 가졌지만 벗과의 이별이 아쉬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춘천에 유거하면서 느낀 외로움과 벗에 대한 그리움, 다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점점 사라져 가는 현실 속에서 그는 자연스레 과거를 회상하고 동경하게 된다.

「燈夕吟

肅宗年間漢陽盛	숙종연간 한양이 번창했을 때
四月八日燈如星	사월초팔일엔 등불이 별과 같았지.
吾家兄弟携美酒	우리 형제들 좋은 술 가지고
每上終南之山亭	매번 남산의 정자에 올라갔었다네.
家家懸燈三四五	집집마다 등불을 3-5개 달아
燈光三萬八千戶	불빛이 삼만팔천호라.
都民無事樂太平	도성 사람들 아무 탈 없이 태평성대 즐기고
醉飽但自爲歌舞	마음껏 먹고 마시며 다만 노래하고 춤추었다네.
今夜蕭條臥窮峽	오늘밤 쓸쓸하게 외진 골짜기에 누워서

一燈自掛庭樹立 등불 하나 뜰 나무에 걸어두었네.
 樹枝有鵲驚飛去 나뭇가지에 있던 까치는 놀라 날아가고
 燈前獨思先王泣 등 앞에서 홀로 선왕 생각하며 눈물 흘린다.

김우명의 딸이 명성왕후로 숙종을 낳았으니 김도수와 숙종은 고종사촌의 인척간이다. 김도수가 과거에 급제도 하기 전에 서얼의 신분으로 관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숙종과 인척간이었다는 점이 작용했음을 고려할 때, 김도수에게 있어 숙종은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다. 위의 시에서 ‘漢陽’과 ‘窮峽’, ‘兄弟’와 ‘蕭條’, ‘上’과 ‘臥’, ‘三萬八千’과 ‘一’이라는 극명한 대비를 통하여 현재 시인의 딱한 처지를 서술하였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가면서 과거를 회상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현재에 대한 울적함을 배가시켜 결국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夜泛前江」

孤棹盪流月上初 달 처음 떠올라 강물에 넘실댈 때 홀로 배를 띄우니
 滿天星斗水光虛 하늘 가득 북두성 빛 강물에 비친다.
 沙禽挾子巢高木 물새는 새끼 데리고 높은 나무에 깃들고
 江客挑燈鱸大魚 강가 나그네는 등불 켜고 물고기 회친다.
 遙夜關山吹玉笛 한밤중 저 멀리 관산에서 옥피리 소리 들려오는데
 少時宮闕侍金輿 젊은 시절 궁궐에서 임금님 수레 모셨었지.
 葛冠藤杖今牢落 지금은 가없게도 갈포관에 등나무 지팡이 신세로
 北望傷神沾兩裾 북쪽을 바라보니 가슴 아파 두 소매 적신다.

한밤중에 홀로 강물에 배를 띄워 놓고 뱃놀이를 하면서 쓴 위의 시에서도 마냥 즐길 수만은 없는 그의 마음상태를 엿볼 수 있다. 경련에서 관산에서 들려오는 玉笛을 서술하였는데, 한밤중에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는 보통 도가적인 이미지로 유유자적하는 탈속적인 분위기를 띠는데 비하여 김도수는 종묘에서 연주하는 음악을 떠올렸다. 음적으로 관직에 나아가 처음으로 근무했던 곳이 국가의 제사와 시호 등의 일을 관장하

는 奉常寺였기 때문이다. 말단관직이긴 하였지만 임금을 근처에서 모셨던 당시를 떠올리며 현재 야인의 신분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린 것이다.

「伏枕」

伏枕違京關	서울을 떠나 침상에 누워서도
懷君尙百憂	임금 생각에 온갖 걱정 든다.
山河當日美	산하는 당시 아름다웠는데
盜賊幾時休	도적은 어느 때나 그칠까?
貊國黃雲晚	맥국엔 누런 구름 깔린 저물녘
狼州白雨秋	낭주엔 소나기 내리는 가을이라.
悲歌稍長夜	슬픈 노래로 긴 밤 근심하며
殘月在江樓	희미해지는 달빛 비추는 강가 누대에 있다네.

위의 시에서 속세를 떠나서도 안주하지 못하는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나라 걱정, 임금 걱정에도 잠도 들지 못해 강가 누대에 올라 새벽이 되도록 슬픈 마음을 달래는 것이다. 도적들이 들끓고 있는데²⁴⁾ 농작물을 키워 수확하는데 방해만 되는 가을비가 내리는 현실 속에 자신이 위치한 춘천엔 黃雲이 끼었다고 하였다. 黃雲은 중국 사막 지방에 끼는 누런 구름으로 邊塞를 의미하니 시인이 처한 위치와 세상과의 거리감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였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낸 것이다.

3. 孤高함의 표출과 위정자에 대한 비판

김도수는 적서차별에 따른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춘천으로 거

24) 김경숙은 앞의 논문(1999)에서 ‘盜賊’을 일상을 유지할 수 없던 백성들이 모인 단순한 群盜일 수도 있으나 김도수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관리들을 진짜 도적이라 여겼다고 하였다.

처를 옮겼지만 현실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하였다. 오히려 임금이 자신을 빨리 불러내어 다시 관직에 진출하여 자신의 뜻을 펼쳐 볼 수 있으리란 기대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그의 소망대로 흐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는 아래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도 하였다.

「尙志」

吾生道與俱	나 태어나면서 도가 갖추어져 있으니
外物非己有	외물은 내 소유가 아니라네.
內重物自輕	안으로 남들을 중시하고 자기를 낮추어야 하니
爵祿所不誘	관직과 녹봉은 피는 바가 아니라네.
衆人憐口腹	사람들 먹고 사는 걸 가련해 하나니
口腹還相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도리어 도를 저버린다네.
厚利易動心	후한 이익은 쉬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만
反側失素守	이리 붙다 저리 붙다가 도리어 본분을 잃게 된다네.
高舉邈流俗	고결한 행동으로 속류를 멀리하여
卓犖去塵白	우뚝하게 속세의 구렁텅이를 벗어나리.

먹고 사는 문제, 나아가 높은 관직에 올라 출세하려는 속인들의 욕망이 하늘로부터 타고난 도를 잃게 만들기에 자신은 그러한 세계에서 벗어나 天真을 지키겠다는 내용이다. 그러기에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홀로 고고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연물이었다.

「雜詩」

蓮生野池中	연꽃이 들판의 연못에 피었는데
花葉一何鮮	꽃과 잎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世人不知採	세상 사람들 켈 줄을 모르니
芳意誰與宣	향기로운 뜻 누구와 함께 펼거나.
幸因微風度	행여 실바람 불어와
時得暗香傳	때때로 그윽한 향기 전해줄까.

白露中夜降 밤중에 서리 내리고
 秋水日泔然 가을 물은 날마다 차가와지네.
 朱華坐零落 붉은 꽃 그 자리에서 말라 떨어지니
 歎息衰柳前 늙은 버드나무 앞에서 탄식한다.

위의 시는 연못에서 홀로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 결국은 그대로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꽃을 묘사한 것이다. 만약 연꽃이 궁궐이나 도회지의 연못에 피었다면 사람들은 다투어 찾아와 감상했을 것이지만 인적이 드문 들뜬 못에 피었기에 결국은 쓸쓸하게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가에 따라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연꽃의 신세를 보며 시인은 자기와 동일시하였다.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서열의 자손으로 태어나 결국 신분적 질곡으로 아무런 포부도 펼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는 자신을 떠 올린 것이다. 울창한 가지로 그늘을 만들어 더위를 피하게 해주는 녹나무의 덕을 읊은 「柟樹行」, 황량한 물가에 홀로 피어 다른 풀들의 질시를 받아 향기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는 꽃을 읊은 「孤樹花」, 제비, 참새 등 못 새들의 놀림을 받으면서도 고고함을 잃지 않는 학을 읊은 「野田鶴」 등의 시에서도 이러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높은 인격과 재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지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도수는 이를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돌린다.

「雜詩 三首의 첫 번째 작품

玉階梧桐樹 옥계단의 오동나무
 本欲棲鳳凰 본래 봉황이 깃들기를 원했건만
 胡爲羣鳥萃 어찌하여 못 새들만 모여들어
 啾啾當朝陽 해 떠오르면 짹짹대는지.
 丹山有高巢 단산에 높은 둥지 있고
 琅玕生其傍 그 곁에 낭간이 돌아났다네.

歸歟千仞飛 돌아가자구나! 천 길 높이 날아
不與爭稻粱 못 새들과 먹이 다투지 말고.

1구의 玉階는 궁궐의 계단이니 계단 옆에 있는 오동나무는 결국 임금
을 보필할 직책을 의미한다. 임금 곁에 훌륭한 인재가 있어야 하지만 현
실은 그렇지 못하여 간신들만 득실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
은 눈과 귀가 막혀 제대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니 제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그 곳을 견디지 못하고 먼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시에서 봉황을 시인 자신, 못 새를 위정자들의 형상화라 보았을 때
마지막 구절에서 먹이를 다투지 않는다고 표현하여 위정자들의 관직생
활은 임금을 보필하여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해 주기 위한 것 보다는 단
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폄하하였다. 자신들의 먹이를 뺏
길까봐 노심초사하며 봉황이 결국 스스로 떠나도록 만들었으니 위정자
들이 서열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것도 단순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함이라 여긴 것이다.

「雜詩 三首의 두 번째 작품

天馬出渥洼 천리마가 악와수에서 나와
當年遠致之 당시에 멀리까지 내달렸었지.
縱受黃金羈 황금 안장을 비록 받더라도
不與凡馬馳 평범한 말들과 함께 달리려 하지 않았다네.
落日瞻西極 석양에 서쪽 끝 바라보고
躑躅雙淚垂 머뭇거리며 눈물 줄줄 흘린다.
世無穆天子 세상에 목천자가 없으니
已矣何足悲 끝이로구나! 뭘 그리 슬퍼하라.

위 시에서는 좀 더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임금
에 대한 원망을 드러냈다. 1구의 洼水는 중국 서북방 甘肅省에 있는 강
으로 거기서 天馬가 나와 漢武帝에게 바치니 무제가 「天馬歌」를 지었다

는 고사가 전한다. 사람들이 천마를 알아보고 융성하게 대우를 해주지만 그러한 물질적 배려를 천마는 원하지 않는다. 옛날 穆王이 서왕모를 만나기 위해 崑崙山으로 갈 때 타고 갔던 말이니 그때처럼 마음껏 달리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에 목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그 때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린 것이다. 위 시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뛰어난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임금에 대한 원망으로도 읽혀진다.

IV. 결론

지금까지 김도수가 춘천에 유거하게 된 배경과 그 속에서 지어진 시문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춘천은 청평산을 끼고 있어 예로부터 은일의 고장으로 명성이 났으며, 실제로 이자현, 김수증을 비롯하여 여러 인물들이 은거생활을 하였다. 또한 퇴계와 다산 등 조선시대 수많은 시인들이 이곳에 들러 그들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맥을 같이 하는 시를 짓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도수의 춘천 유거는 일반적인 은거와는 성격이 다름을 본문에서 살펴보았다. 그는 자신이 원하여 은거한 것이 아니라 서얼 출신이라는 신분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거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춘천에서 지은 시문에는 현실지향적인 의식이 매우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본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김도수는 춘천에서 유거하면서 느끼는 한가로움을 읊기도 한 반면에 관직에 진출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표출하였다. 또한 홀로 외로이 지내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벗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 형상화하였으며, 옛날 서울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며 향수에 젖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희망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는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고고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고,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위정자들의 무능력과 안일함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參考 文獻>

- 金道洙, 『春洲遺稿』(문충 VOL. 219)
金錫胄, 『息庵先生遺稿』(문충 VOL. 145)
金壽恒, 『文谷集』(문충 VOL. 133)
金佐明, 『歸溪遺稿』(문충 VOL. 122)
李敏敍, 『西河先生集』(문충 VOL. 144)
前間恭作, 『古鮮冊譜』, 민족문화, 1995.
『司馬榜目』(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사이트)
- 김경숙, 「18세기 전반 서얼문학 연구 : 이세원, 신유한, 강백, 김도수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9.
——, 「金道洙 漢詩 研究 : 外戚과 庶孽의 二重의 自我」, 『한국한문학연구』 28집, 한국한문학회, 2001.
——, 『조선 후기 서얼문학 연구』, 소명출판, 2005.
김부열, 「春洲 金道洙의 漢詩 研究」,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영기, 『김유정-그 문학과 생애』, 지문사, 1992.
배재홍, 「조선후기의 서얼 허통과 신분지위의 변동」,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4.
이경수, 「은둔의 전통과 청평사 한시」, 『韓國漢詩研究』 4집, 한국한시학회, 1996.
이근호·조준호·이계형, 「京畿北部地域의 集姓村의 分布와 立地條件」, 『北岳史論』 8집, 북악사학회, 2001.
정만조, 「朝鮮中後期 京畿北部地域의 士族變遷과 集性村의 發達」, 『北岳史論』 8집, 북악사학회, 2001.
조준호, 「朝鮮 肅宗~英祖代 近畿地域 老論學脈 研究」,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4.

Abstract

Chun ju Kim Do-Su's Chunchon hermitage and poetic World
/ Kim Geun Tai*

Kim Do-Su that born as child of a concubine of middle distinguished family pedigree's sons and gransons is convulsed with laughter at young age and is person who it is hardly known in literary world. But, was recognized poetic ability associating with scribbling tribe of famous illustrious official literary man and principal cause class, same child of a concubine class at that time and although the end was even entered office. At that time, government office life could not but be short on restriction of social position which is child born of a concubine in social system, and he chose hermitage of Chunchon. He can never speak that weight that Chunchon occupies in life that is not long enough to use number named Chunju is small. This report examined background that he is lived in retirement in Chunchon and thereinto personality of Chinese poem.

Chunchon contains Cheongpyeongsan and fame acknowledged from ancient times breakdown of retirement from the world, Actually, several persons retired from the world including Lee ja-hyun and kim su-jeung. Also, Chosyn Period great many poets such as Teogye and Dasan wrote poetry that evaluate their life positively. But, personality is different with retirement that Chunchon retirement of Gimdosu is general. Because of restriction that he is Restriction of social position of child born of a concubine origin not that live in retirement because oneself wants, is obliged to choose retirement. Therefore, consciousness which he is the actuality intention that poeticize in Chunchon

* Lecturer of Kangwon Univ. / neoktkim@paran.com

was projected very strongly. While recite that is leisured that feel living in retirement in Chunchon, but expressed as it is own desire which want to advance to government office. Also, lament solitarily passed own moral indebtedness and expressed by poem to yearning about friend and in ancient times, thought life in Seoul and wet in enjoyment. Also, he showed own personality through natural object symbolically in real that do not become in accordance with own hope and criticized politician's lack of ability that do not recognize competent person and that is idle.

【Key words】 Kim Do-Su, child born of a concubine, Chunchon, actuality
intention

투고일 : 5월 1일, 심사일 : 5월 30일, 게재확정일 : 6월 7일